

국제정치연구 투고규정

개정 2018년 2월 1일

개정 2019년 1월 31일

개정 2019년 12월 31일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국제정치연구(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는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가 연4회 발행하는 공식적인 학술지로서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 호별 원고 접수 마감일 :

1호 -	2월 15일
2호 -	5월 15일
3호 -	8월 15일
4호 -	11월 15일

2.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200매 이내로 한다(각주 및 참고문헌 포함)
3. 논문은 한컴오피스(또는 Microsoft Word)로 작성한 파일을 반드시 JAMS(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투고한다.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https://eais.jams.or.kr>

4.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을 통한 원고 접수 시 반드시 저작권 활용 동의 및 권한명세에 관한 제반 규정을 확인하고 저작권 이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학술지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하에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제정치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가 학회 홈페이지, JAMS, 한국연구재단(KCI) 등에 논문을 공개할 수 있고, 논문의 출판, 판매 등의 권한을 가지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일체는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에 귀속된다.
5. 논문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투고자는 KCI문헌유사도검사 서비스 등의 표절검사 결과를 제출(JAMS에 탑재)하여야 한다.

- 1) KCI 문헌유사도 검사 등의 검사 결과 (자기)표절률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2) 본 학술지의 논문 게재를 위해서 KCI 문헌유사도와 카피킬러(copy killer) 표절 검사 결과, 문서표절률을 10% 미만으로 한다(투고 및 최종 논문 제출 시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를 필히 첨부한다)
6. 논문 게재가 확정된 후 저자의 소속과 저자정보(직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연구 신뢰성을 제고한다.

7. 논문작성 요령

- 학회지의 사용언어는 한글 전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괄호 처리하여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 본학회지의 논문작성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본 학회가 외국어 전용 학회지를 별도로 발행할 때까지는 심사 가능한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 원고는 국문제목, 이름(소속), 차례, 국문요약 및 주제어(5개), 논문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 및 key words(5개)순서로 구성한다.

■ 원고작성의 기본 형식

글자크기 : 제목 18p, 본문 10.5p, 각주 9.5p,

줄 간 격 : 170%

여백주기 : 좌 · 우 각 27.5mm, 위 · 아래 각 21.5mm, 머리말 · 꼬리말 각 12mm.

본문번호 : 장 · 절 · 항 · 목의 번호는 ‘I (14.5p)’, ‘1(12p)’, ‘1)(11.5p)’, ‘(1)(11p)’의 순차로 매긴다.

-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만 수록한다.
-

1) 각주 작성

■ 저서 및 논문

- (1) 하영선,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2012), p.120.
- (2)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124.
- (3) 임석준·이진우, “재난과 정치적 리질리언스,” 『국제정치연구』 제16집 제2호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2013), p.25.
- (4)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72 (3), (Summer, 1993), 23-25.
- (5) 홍길동, “미·중 패권경쟁에 관한 연구,” (한국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8), p.120.
- (6) Cynthia Lillian Rutz, “King Lear and Its Folktale Analogu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2013), 99-100.

■ 편저

- (1) 변창구, “세계화의 개념과 특성”, 변창구(편), 『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 (서울 : 대왕사, 2000), p.37.
- (2) Kahler Miles, “Multilateralism with Small and Large Numbers,” in John Gerard Ruggie(eds.),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295.

■ 번역서

Samuel P. Huntington, 『문명의 충돌』 이희재 역, (과주: 김영사, 1997), p.250.

■ 표와 그림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로 표기하고, 아래에 출처를 밝힌다.

예)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2000』 (2000), p.97.

■ 신문, 매거진(magazine)

장세정,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패배한다면,” 『중앙일보』 2019.06.10., 29.

Vera Mironova, “Is the future of ISIS female?” *The New York Times*, Feb 22, 2019, A12.

콘도 다이스케, “한반도 뒤덮은 미·중 무역분쟁의 난기류,” 『월간중앙』 2019.09.17., 201910호, 96.

Jonathan Rauch, “Autocorrect,” *The Atlantic*, Jun, 2019, 11.

■ 인터넷 자료

저자, 제목, 웹 주소 및 검색일자를 명기한다.

(1) 신문

원우식, “미국·이란, 사이버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4/2019062400222.html(검색일: 2019.12.20).

Niall Ferguson, “The New Cold War? It’s With China, and It Has Already Begun,” *The New York Times*, Dec 2, 2019.

<https://www.nytimes.com/2019/12/02/opinion/china-cold-war.html>(검색일: 2019.12.19).

(2) 웹자료

전성훈, “Trump 행정부의 NPR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http://www.asaninst.org/wp-content/themes/twentythirteen/action/dl.php?id=54935>
(검색일: 2019.12.20).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8,”

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FH_FITW_Report_2018_Final_SinglePage.pdf
(검색일: 2019.12.20.).

■ 재인용

1) 하영선(2012), p.135.

2) Huntington(1993), p.36.

3) 변창구(2000), p.35.

2) 참고문헌 작성

■ 저서 및 논문

- (1) 하영선,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2012.
- (2)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 (3) 임석준·이진우, “재난과 정치적 리질리언스.” 『국제정치연구』 제16집 제2호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2013), 18-35.
- (4)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72 (3), (Summer, 1993), 22-49.
- (5) 홍길동, “미·중 패권경쟁에 관한 연구.” 한국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8.
- (6) Rutz, Cynthia Lillian. “King Lear and Its Folktale Analogu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2013.

■ 편저

- (1) 변창구, “세계화의 개념과 특성.” 변창구 편, 『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 서울 : 대왕사, 2000.
- (2) Kahler, Miles. “Multilateralism with Small and Large Numbers.” in John Gerard Ruggie(eds.),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번역서

Huntington, Samuel P. 『문명의 충돌』 이희재 역, 파주: 김영사, 1997.

■ 신문, 매거진(magazine)

장세정,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패배한다면.” 『중앙일보』 2019.06.10.

Mironova, Vera. “Is the future of ISIS female?” *The New York Times*, Feb 22, 2019.

콘도 다이스케, “한반도 뒤덮은 미·중 무역분쟁의 난기류.” 『월간중앙』 2019.09.17., 201910호.

Rauch, Jonathan. “Autocorrect.” *The Atlantic*, Jun, 2019.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윤리규정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이하 학회) 윤리규정은 학회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학회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1. 학회의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의 학회장 등 임원은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학회의 학회장 등 임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학회의 학회장 등 임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5. 학회의 논문집 『국제정치연구』에 논문을 신고자하는 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자는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제정치연구> 논문표절 관련규정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주체) 『국제정치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① 『국제정치연구』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② 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삭제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국제정치연구』에 표절 사실 공시
- ④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논문심사규정

1.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무기명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심사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하며,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등 4등급으로 심사한다.

■ 논문심사 기준

-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
- 2) 연구방법의 적절성(10)
- 3) 내용의 완결성(10)
- 4) 논문작성의 성실성(10)
-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10)
- 6) 논문주제의 창의성(10)
-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10)
- 8) 논문초록의 적합성(10)
- 9)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
-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10)

3. 논문에 대한 게재 및 재심, 불가 판단 유형은 아래의 표에 의해 분류됨.

■ 논문게재 기준(초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A-A-A A-A-B A-A-C A-A-D	A-B-B A-B-C B-B-B	A-B-D A-C-D A-C-C B-B-C B-C-C B-B-D	A-D-D B-C-D B-D-D C-C-C C-C-D C-D-D D-D-D

(A : 게재가능, B : 수정 후 게재, C : 수정 후 재심, D : 게재불가)

- * ‘게재’ 판정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따라 논문에 대한 수정·첨삭이 가능하다.
- * ‘수정 후 게재’ 판정의 경우 논문심사평가서를 참조하여 반드시 수정 후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수정하지 않은 경우 이에 합당한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밝혀야 함).
- * ‘재심’ 판정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하되, 필자의 수정본에 대해 참석 편집위원(추천된 외부 심사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논문게재 기준(재심)

게재	게재 불가
A-A-A A-A-D	A-D-D D-D-D

(A : 게재가능, B : 수정 후 게재, C : 수정 후 재심, D : 게재불가)

4. 기 게재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